

Suggestions on Seeking Competitive Roles as a Translator in TV Newsroom

Nayoung Je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ways for news translators to expand their positions in TV newsroom.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s between reporters, translators, and translators who present news on TV regarding their roles on the macro-level of news translation, which is finding newsworthy items, focusing on the selection ratio of hard and soft news and that of news with event shots. The data showed that reporters came first in the report of hard news followed by translators who present and those who do not. Translators, regardless of their presenting roles on TV, selected more news with event shots than reporters. The data imply that reporters are allowed to report on important issues even if no event shots are included while translators are expected to report on news with visual attraction. Based on this, it would be ideal for translation school graduates to start as a reporter in TV newsroom. It can be also suggested for those who are working as a TV newsroom translator that they seek a role as a news presenter and establish reputation by building competitive edge of reporting news with visual attraction.

Key Words: TV Newsroom Translator, Soft News, Hard News, Event Shots, Visual Attraction

TV 보도국 통번역사의 경쟁력 있는 역할 모색에 관한 제언*

정 나 영**

요약: 본 연구는 TV 보도국 통번역사가 조직 내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자와 출연 통역사, 그리고 일반 통역사가 국제 뉴스 보도의 거시적 단계, 즉 기사 발굴 단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 제작 비율, 그리고 사건 화면 확보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성 뉴스 제작 비율은 기자, 출연 통역사, 일반 통역사 순이었으며, 사건화면 확보율은 일반, 출연 통역사가 비슷한 반면 기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기자에게는 시각적 볼거리가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뉴스의 보도 권한을 주는 반면 통역사에게는 시각적 흥미 위주의 뉴스의 보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거하여 TV 보도국 통번역사가 입지를 구축하려면 통번역대학원 졸업 후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부 기자로 입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번역사 신분으로 입사한 경우 출연 통역사로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주요 뉴스 제작에 투입될 것을 제안하고, 일반 통역사일 경우에는 시각적 흥미 위주의 뉴스를 경쟁력 있게 발제, 제작하는 역량을 쌓을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TV 보도국 통역사, 연성 뉴스, 경성 뉴스, 사건화면, 시각적 흥미

□ 접수일: 2022년 4월 6일, 수정일: 2022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 이 논문은 2022년 국립공주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국립공주대학교 관광&영어통역융합학과 조교수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 Email: jeongnayoung@kongju.ac.kr)

I. 서론

TV 보도국 국제부의 대표적인 뉴스 작성 주체, 즉 보도 주체는 특파원을 포함한 국제부 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BS, YTN과 같이 규모가 큰 방송사 보도국의 경우에는 국제부 뉴스 작성 주체로 통번역사¹⁾도 함께 일하고 있다(정나영, 2018). 국제부에서 발생하는 통역과 번역과 관련된 업무는 실로 다양한데 크게는 취재 혹은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어 통번역 지원 업무, 그리고 번역 기반 2차 취재를 기반으로 한 국제 뉴스 보도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정나영, 2022). 전자의 경우는 TV 보도국 통역사에게 특화된 직무라면 후자는 국제부 기자의 직무를 일부 분담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거 2000년대 초중반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의 줄임말로 ‘아나테이너’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 제작 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TV 보도국 내 기자 그리고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가령 SBS에 최근 입사한 한 기자의 경우 보도국 기자직으로 입사했지만 국내 유수의 통번역대학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외신의 반응을 시청자들에게 통역을 통해 동시 보도함으로써²⁾ 4차 산업혁명에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 다시 말해 단순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보도 역량과 통역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형 인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한국방송공사가 2018년 국내 유수의 통번역대학원과 동시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³⁾ 뉴스 특보 관련 통역 발생 시 전문 통역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보도국에서는 뉴스 특보 보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즉 과거 소위 ‘국제회의의 통역사’라고 불리던 전문 통역사들이 방송사 간 속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방송 동시 통역에 투입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TV 보도국 내 통번역 업무가 다변화되는 현시점에서 국내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중 TV 보도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무기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며, 실제 입사한 이후에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에

1) 활자 매체의 언론사와는 달리 TV 보도국의 통번역사들은 주로 통역사라는 직함을 주로 사용하며 이 밖에도 조직 내에서 통번역사, 번역사 등의 명칭을 혼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통역사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되 번역사와 통번역사의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8/06/369836>>.

3)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gsti&dum=dum&boardId=4132930&page=1&command=view&boardSeq=15916515>>.

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도국 내에서 정규직으로서 비교적 입지가 확고한 국제부 기자와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보도에 투입되는 통역사,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넓은 통역사와 좁은 통역사가 발제, 보도하는 뉴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번역대학원 졸업생들이 경쟁력 있는 통역 인력으로 보도국 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거시적 차원의 번역- 기사 발굴을 중심으로

체스터만(Chesterman, 2009)이 제시한 번역학에서의 사회적 전환이 시작된 이래 번역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기관 혹은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보는 ‘제도적 번역’의 관점이 대두되었다(Gouanvic, 2005). 대표적인 제도적 번역으로 볼 수 있는 언론사에서의 뉴스 번역은 서구권보다는 아시아권에서 뉴스 편역(transediting)(Stetting, 1989)⁴⁾의 이름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송연석, 2012). 세계적인 통신사인 AP와 로이터의 뉴스를 전 세계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뉴스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뉴스의 흐름이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흐르는, 다시 말해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리스쿠(Risku, 2004)가 번역사를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한 사실 역시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뉴스 보도의 메커니즘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활자 매체 언론사에서 일하는 뉴스 번역사에 관한 연구는 홍정민(2014)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홍정민(2014)은 기사 생산 전반을 책임지는 기자에 비해 뉴스 번역사들은 주로 텍스트 처리의 전문성을 요구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뉴스 번역사들은 기사 생산의 일부만을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뉴스 번역을 거시적 차원, 즉 번역할 뉴스를 선정하는 단계와 미시적 차원, 즉 번역 대상으로 선정된 원천 텍스트를 번역을 통해 목표 텍스트로 처리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발데온(Valdeón,

4) 편역(transediting)은 번역(translation)과 편집(editing)의 합성어로 원천 텍스트에 과감하게 개입하는 편집 수준의 번역을 일컫는다(저자 주).

2015)의 주장에 의거해 볼 때, 홍정민(2014)의 주장은 기자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번역을 총괄하는 반면 번역사는 주로 미시적 차원의 번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TV 방송사 내 통번역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는 주로 정나영(2018; 2022)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나영(2018)의 연구에 따르면 TV 방송사 내 통번역사들은 기자와 마찬가지로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번역에 모두 참여한다. 즉, TV 보도국의 통번역사들은 직접 기사를 발굴하다. 다만 거시적 차원의 번역에서 기자에 비해 통번역사는 원천 텍스트 소스에 제한적인 접근성을 가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자는 보도국이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통신사 및 신문 그리고 해외 방송사의 뉴스를 원천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번역사의 경우 해외 방송사의 완결된 리포트를 주로 원천 텍스트로 활용할 것을 요구받는다(정나영, 2018). 이처럼 두 번역 주체 간 원천 텍스트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기사 발굴에 있어서도 통번역사는 기자에 비해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사 발굴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면 통번역사가 보도국 내 입지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애초 보도국 입사 시에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

TV 보도국의 뉴스 제작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이 같은 분류가 다소 희미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는 크게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로 나눌 수 있다(이상록·윤영미,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활자 매체 언론사와는 달리 TV 보도국에서는 번역의 거시적 단계인 기사 발굴에 통역사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단계에서 기자와 통역사가 통상 경성, 연성 뉴스를 어떻게 취사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 제작 주체의 역할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 미디어와 뉴스 공급자로서의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뉴스의 연성화, 더 나아가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화 경향성은 저널리즘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방영덕·박재영, 2009) 경성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는 경우 보도국 내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성 뉴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공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반면 연성 뉴스는 이슈 중심의 뉴스가 아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 중심의 가벼운 뉴스로 설명된다(Patterson, 200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성,

연성 뉴스여부를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뉴스의 세부 주제인데, 이상록·윤영민(2012)은 뉴스의 주제 중 정치, 경제, 국제관계, 교육, 법률, 종교 관련 뉴스는 경성으로, 범죄, 공포, 금전, 성폭력, 진기함, 화제, 가십, 인정, 미담, 의학, 과학, 기술, IT, 자동차, 연예, 오락, 스포츠, 르포, 사람이야기, 인생스토리, 예술, 문화, 사진, 취미, 여행, 건강 관련 뉴스는 연성으로 보았다. 그 밖에도 뉴스의 성격 및 뉴스의 가치 등을 통해 경성과 연성 요소를 세부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요소는 주로 단일 뉴스의 경성, 연성의 정도를 수치화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주로 사용된다(이상록·윤영민,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성, 경성 여부를 비교적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주제별 분류를 따르되 모호한 뉴스의 경우 패터슨(Patterson, 2000)의 경성, 연성 개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아울러 활자 매체 뉴스와 달리 TV 뉴스의 경우 뉴스의 경성, 연성 여부를 떠나서 시각적 흥미(visual attraction), 즉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영상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기사 발굴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이창현, 2007). 즉 TV 뉴스 보도에서는 뉴스의 주제를 떠나서 애초에 자료화면 혹은 로케이션샷으로만 메워진 뉴스는 기사 발굴 단계의 게이트키퍼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 화면 확보 여부 역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한국방송공사의 국제 뉴스 작성 주체는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기자와 통역사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통역사는 다시 출연 통역사와 일반 통역사로 분류할 수 있다(정나영, 2018). 본 연구는 출연 통역사가 국제 뉴스를 브리핑하는 오후 11시 뉴스와 일반 통역사가 브리핑하는 오전 930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⁵⁾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2주간으로 설정하였다.

5) 국제부 기자는 두 뉴스 모두에서 브리핑한다.

2. 연구 수집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에서 앞서 언급한 기간 중 국제부 기사 작성 뉴스, 출연 통역사 작성 뉴스, 일반 통역사 작성 뉴스 중 가장 상단에 위치한 뉴스를 각각 2꼭지씩 표집하였다. 이를 통해 총 국제부 기자 브리핑 뉴스, 출연 통역사 브리핑 뉴스, 일반 통역사 브리핑 뉴스를 각각 20건씩 추출할 수 있었고, 총 60건의 뉴스를 모두 경성, 연성으로 분류하고,⁶⁾ 사건 화면 확보 여부를 파악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경성 뉴스: 기자 > 출연 통역사 > 일반 통역사

상기 언급한 세 그룹의 제작 주체 중 국제부 기자가 경성 뉴스 제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그 다음은 출연 통역사 그리고 일반 통역사 순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부 기자가 보도한 뉴스 20건 중 19건이 경성뉴스인 반면 출연 통역사가 보도한 뉴스는 10건이 경성 뉴스였으며 일반 통역사가 보도한 뉴스 중 경성 뉴스는 2건에 불과했다(표 1). 이는 경성 뉴스 제작은 주로 국제부 기자가 담당하며 통역사는 일반적으로 경성 뉴스 제작에는 배제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출연 통역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성 뉴스 제작에 부분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출연 통역사는 일반 통역사와 비교할 때 기자에 비교적 가까운 보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도 주체별 제작 뉴스 종류

	경성 뉴스	연성 뉴스
국제부 기자	19 건	1 건
출연 통역사	10 건	10 건
일반 통역사	2 건	18 건

6) 본 연구에서 경성, 연성 뉴스의 분류 체계는 원천 텍스트 기준, 즉 원문이 원천 국가 내에서 갖는 뉴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즉 목표 텍스트를 기준으로 국제 뉴스라는 이 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연성, 혹은 경성 뉴스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성 뉴스를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기자의 경우 제작한 경성 뉴스 총 19건 중 17건이 국제 관계 뉴스로 85%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연 통역사는 제작한 경성 뉴스 총 10건 중 4건이 국제 관계 뉴스로 40%를 차지한 반면 사회 뉴스는 5건으로 50% 그리고 정치 뉴스는 1건으로 10%를 차지했다(표 2). 이는 동일한 경성 뉴스라 하더라도 기자는 한미, 한일 관계 등을 다루는 국제관계 뉴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국제 뉴스에 주로 투입되는 반면에 출연 통역사는 이에 비해 일정한 경향성이 없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성 뉴스 중 국제 관계 뉴스의 보도의 우선권은 기자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보도 주체별 제작하는 경성 뉴스 종류

	국제 관계	정치	사회
국제부 기자	17건	0건	2건
출연 통역사	4건	1건	5건
일반 통역사	0건	0건	2건

연성 뉴스도 함께 논의한다. 기자가 제작한 연성 뉴스 1건의 세부 주제는 공포로 나타났다. 출연 통역사가 제작한 연성 뉴스 10건의 세부 주제는 다양한데 그 중 공포가 5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화제 1건, 진기함 2건, 미담 1건, 스포츠 1건으로 나타났다. 일반 통역사가 제작한 연성 뉴스 18건의 세부 주제는 사람이야기 3건, 진기함 4건, 의학, 화제 2건씩이었고, 르포, 문화, 여행, 금전, 미담, 공포, 범죄는 각각 1건씩이었다. 연성 뉴스 중 부정적 요소가 많은 공포 뉴스는 출연 통역사가 일반 통역사에 비해 제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뉴스가 긍정적 뉴스에 비해 보도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연성 뉴스 제작 양은 일반 통역사가 출연 통역사에 비해 많지만 연성 뉴스 중 보도 가치가 높은 뉴스 보도의 우선권은 출연 통역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건화면 확보: 출연, 일반 통역사 > 기자

기자가 보도한 뉴스 20편 중 11편에는 새롭게 들어온 사건화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9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출연 통역사가 보도한 뉴스 20편 중 20편 모두, 그리고 일반 통역사가 보도한 뉴스 20편 중 19편에 새롭게 들어온 사건화면이 포함되어 있어, 출연 여부를 막론하고 통역사가 보도한 뉴스 중 거의 모든 뉴스에는 사건화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 같은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 보도 주체별 제작 뉴스 종류

	사건화면이 포함된 뉴스	사건화면이 포함되지 않은 뉴스
국제부 기자	11 건	9 건
출연 통역사	20 건	0 건
일반 통역사	19 건	1 건

첫째, 기자의 경우 기사 발굴 단계에서 사건 화면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자들은 시청자들을 시각적으로 자극할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용만으로도 보도 가치가 있는 국제 정책이나 현안 관련 뉴스들을 발굴하고 발제할 기회를 갖고 이는 기사 선정 단계의 게이트키퍼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역사의 경우 출연 여부에 관련 없이 사건화면 확보 여부가 기사 발굴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 연성 뉴스를 발굴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던 출연, 일반 통역사가 사건화면이 확보된 뉴스를 일관되게 발굴한다는 사실은 통역사의 경우 경성, 연성에 관련 없이 영상 중심의 뉴스를 발굴, 보도할 것을 보도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시사점- TV 보도국 통역사의 입지 확대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상술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거해 서론에 제기한 연구 질문들에 관한 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절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TV 보도국 통역사가 어떠한 역할을 모색해야 할지를 논의한 정나영(2018)의 연구와의 차별점은 해당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역할을 ‘데일리 서포트’⁷⁾와 ‘기사 작성’의 두 축으로 나눈 후 데일리 서포트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지를 중점적으로 펼쳤다면 본 연구는 ‘기사 작성’의 축 중 기사 발굴의 단계에서의 통역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TV 보도국 통역사로 입사하고자 하는 현재 국내 통번역대학원 재학생들은 어떠한 입사 전략을 짜야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제언을 할 수 있겠다. 기자에게 중요도가 더 높은 경성 기사의 발굴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7) ‘데일리 서포트’는 정나영(2018)에서 발췌한 용어로 TV 보도국 통번역사들이 기자들의 보도에 통번역 전문가로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뜻한다.

TV 보도국에서는 비정규직 전문 통역사에 비해 정규직 기자에 훨씬 더 공고한 입지를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전문 통번역사로 입사하기보다는 정규직 기자로 입사하되 통번역 대학원 졸업장을 무기로 국제 뉴스 보도에 있어서 다른 기자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보도국 내에서의 장기적 입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미 통번역대학원 출신 지상파 기자라는 융복합형 인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다시 한번 뒷받침된다. 특히 최근 TV 보도국이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를 오히려 축소하고 동시통역은 통번역대학원과의 MOU를 통해 단발성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통번역대학원 출신 지상파 기자가 동시통역에도 즉각 투입될 수 있는 형태가 보도국에서 기대하는 통번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이미 TV 보도국 통번역 인력으로 입사한 통번역사의 경우 어떻게 보도국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일반 통역사에 비해 비교적 보도국 내에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출연 통역사를 벤치마크하여 기사 발굴 단계에서 경성 뉴스를 발굴할 수 있는 입지를 닦을 것을 제언한다. 이는 기자 수준의 현안 분석 능력과 보도 능력을 키우고 여기에 관한 명성이 쌓이면 자연스레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에서 복수의 통역사들이 실제 출연하여 경성, 연성 뉴스를 아우르며 보도할 기회가 2013년 이후 꾸준히 있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출연, 일반에 관계없이 일단 통역사라는 직함으로 기사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사 발굴 단계에서 영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시각적 흥미가 부족한 연성 뉴스는 기사 발굴 단계에서 가급적 배제해야 하며, 경성 뉴스를 보도할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사건화면이 확보된 뉴스를 우선적으로 발제해야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영상을 중심으로 한 뉴스의 보도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 명성을 쌓는다면 이후에는 보도국에서 다양한 인재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TV 보도국 인하우스 통역사가 조직 내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뉴스 데이터의 양적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도국의 국제 뉴스 제작 주체를 크게 기자, 출연 통역사, 비출연 통역사로 분류한 뒤 이들이 제작한 뉴스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보도국 내

입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하우스 통역사가 보도국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뉴스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두 축으로 분류하였는데, 한 축은 경성 뉴스 혹은 연성 뉴스 여부였고, 다른 한 축은 사건화면 확보 여부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도가 높은 경성 뉴스는 대부분 국제 뉴스 기자가 제작하고 있었고, 이후 출연 통역사, 그리고 일반 통역사 순이었다. 특히 국제 뉴스 기자는 국제 관계를 다룬 경성 뉴스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었고, 통역사는 출연 통역사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성 뉴스 제작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통역사는 대부분 새롭게 입수된 사건 화면이 확보된 뉴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자는 사건 화면이 확보되지 않은 뉴스도 다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도국에서는 통역사에게는 영상 중심 뉴스를 제작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국제 뉴스 기자에게는 시각적 볼거리가 없는 뉴스라 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보도 가치가 높을 경우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술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TV 보도국 통번역직을 준비하고 있는 통번역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통번역대학원 졸업 후 지상과 기자로 입사한 후 국제 뉴스 보도에 특화됨과 동시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동시통역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력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다면 보도국에서 기대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통번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역사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단순 언어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 기자 수준의 현안 분석 능력과 보도 능력을 키워서 연성 뉴스뿐 아니라 경성 뉴스도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조언한다. 물론 능력이 갖춰진다고 바로 기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명성이 쌓이면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통역사의 직함으로 국제 뉴스를 보도할 경우 다른 제작 주체와는 차별화된 수준으로 영상 중심의 뉴스를 발굴, 보도하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이를 토대로 향후 보도국 내 다양한 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번역대학원에도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는 동시통역 교과목 시간에 방송 뉴스 동시통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송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미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통 통번역 교육을 받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뉴스 글쓰기에 특화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커리큘럼 중 현안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경성 뉴스 번역과 시각적 흥미를 부각시키는 번역 능력이 요구되는 연성 뉴스 번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방영덕·박재영(2009), “인터넷 뉴스의 기사선택과 제목편집: 미디어다음과 조선닷컴의 경우”, 『한국방송학보』, 23(3): 86-124.
- 송연석(2012), “뉴스편역의 번역규범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59-82.
- 이상록·윤영민(2012), “스마트 폰 앱 뉴스의 연성화 분석 -동아닷컴, 인터넷한겨레,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 폰 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3): 330-354.
- 이창현(2018), “기자의 뉴스가치 인식에 있어 ”시각적 흥미“에 대한 조사연구”, 『AURA』, 16: 97-103.
- 정나영(2018), “공공기관 통번역 팀 운영에 관한 통시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15(1): 31-52.
- 정나영(2022), “인하우스 통번역사 직무의 규범 연구”, 『인문사회21』, 13(1): 723-736.
- 홍정민(2014), “한국 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6(1): 253-294.
- Chesterman, A.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ans』, 56(1): 13-22.
- Gouanvic, J. (2009), “A Bourde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The Translator』, 11(2): 147- 166.
- Patterson, T. (2000), 『Doing well and doing good: How soft news and critical journalism are shrinking the news audience and weakening democracy-And what news outlets can do about it』, The Joan Shorenstein Center for Press, Politics, & Public Policy at Harvard University.
- Risku, H. (2004), “Migrating from translation to technical communication and usability”, In Hansen, G., Malmkjær, K., & D.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181-195,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tetting, K. (1989), “Transediting -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Cale, G. (Ed),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Valdeón, R. A. (2015), “Fifteen Years of Journalistic Translation Research and More”,
『Perspectives』, 23(4): 634- 662.

【부록】

1. 기자 보도 뉴스

1	5월 22일	사드 보복 풀리나? ... 한중 관계 해빙 무드	경성
2	5월 22일	中, 핵 기지 ICB 반격 공개... “美 견제용”	경성
3	5월 23일	英 공연장 폭발 22명 사망... IS, 배후 자처	경성
4	5월 23일	“또 소프트 타깃 테러”... 유럽 불안감	경성
5	5월 24일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논의... 中 대화 강조	경성
6	5월 24일	英 테러 경보 최고 단계... 군 병력 배치	경성
7	5월 25일	정유라, 항소심 자진 철화... 한 달 내 한국 송환	경성
8	5월 25일	“영국 테러 단독 범행 아닌 듯” ... ‘위기’ 격상	경성
9	5월 26일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거듭 요구	경성
10	5월 26일	필리핀 민다나오 계엄령... 특별 여행주의보	경성
11	5월 29일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 방위비 변수? 1	경성
12	5월 29일	정부군-IS 반군 교전 ‘격화’... 수십만 피난길	경성
13	5월 30일	美 “모든 국제선에 ‘랩톱’ 반입 금지 검토”	경성
14	5월 30일	러 100년 만의 강력 돌풍... 14명 사망	연성
15	5월 31일	美, 北 ICBM 대비 첫 요격 시험 성공	경성
16	5월 31일	정유라, 오후 도착... 기내서 체포 영장 집행	경성
17	6월 1일	ICBM 요격 영상... “총알이 총알 맞는 격”	경성
18	6월 1일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문제없다”	경성
19	6월 2일	한미 북핵 공조... “대북 압박, 대화 병행”	경성
20	6월 2일	“철수 시사 없었다” vs “사드 미래 불확실”	경성

2. 출연 통역사 보도 뉴스

1	5월 22일	히잡 안 썼어도... 트럼프家 여성들에 “열광”	연성
2	5월 22일	먹이로 착각? ... 순식간에 낚아 채 물속으로	연성
3	5월 23일	‘불덩이’에 깔린 소방관... 시민들 힘 모아 구조	연성
4	5월 23일	거대한 몸집의 약탈자 ‘야생 곰’ 비상	연성
5	5월 24일	IS 세력과 치열한 전투... 계엄령 선포	경성
6	5월 24일	미국 찬양하고 중국을 비판? ... 비난 ‘폭주’	경성
7	5월 25일	추가 테러 우려 속 기밀 정보 ‘줄줄’... 英 美 갈등	경성
8	5월 25일	“테러 아픔에 위로됐으면... 우승컵 바칩니다.”	연성
9	5월 26일	“정상들 꾸짖고 밀치고”... 트럼프 언행 구설	경성
10	5월 26일	도심 도로의 지뢰? ... ‘험거운 맨홀뚜껑’	경성
11	5월 29일	엄청난 가속... ‘위터슬라이드’에서 내동댕이	연성
12	5월 29일	네이버실 요원, 낙하 시범 도중 ‘추락사’	연성
13	5월 30일	테러범이 남긴 ‘의문의 가방’... 뭐가 들었나?	경성
14	5월 30일	망망대해의 난민 보트에서 불길아...	연성
15	5월 31일	외교관들 노렸나? ... 카불 테러로 90명 사망	경성
16	5월 31일	수도관 폭발로 건물까지 ‘파손’	경성

17	6월 1일	폭과 위협하며 조종실 난입 시도… ‘긴급 회항’	경성
18	6월 1일	수영장 배수구에 끼여… 목숨 잃을 뻔	연성
19	6월 2일	총격, 방화에 참사… 한국인 등 38명 사망	경성
20	6월 2일	사람 잡는 ‘에어바운스’… 강풍에 날려 ‘중태’	연성

3. 일반 통역사 보도 뉴스

1	5월 22일	빈 라덴 아들, 알 카에다 ‘새 얼굴’ 부상	경성
2	5월 22일	중국, 교통 위반 공유 자전거 처벌 ‘골치’	경성
3	5월 22일	일본, ‘아기 우체통’ 설치 10년	연성
4	5월 23일	베트남, ‘나무 리코더’ 수업 효과 ‘만점’	연성
5	5월 24일	중국, 2대 폭포 후커우 폭포 ‘장관’	연성
6	5월 24일	일본, ‘웃음의 암 치료 효과’ 연구 시작	연성
7	5월 25일	일본, ‘출산 후 직장복귀율 100%’의 비결	연성
8	5월 25일	중국, ‘바가지 음식점’에 벌금 4억원, 영업정지	연성
9	5월 26일	미국, 첫 해외순방 멜라니아 트럼프의 패션	연성
10	5월 26일	중국, 침수 도로서 뚜껑 없는 맨홀 지킨 의인	연성
11	5월 29일	중국, ‘수영장 물놀이’ 아기 익사 직전 구조	연성
12	5월 29일	일본, ‘어부의 모닝콜’ 인기	연성
13	5월 30일	영국, ‘중세기사’ CEO “기사도 정신 실천”	연성
14	5월 30일	중국, ‘위험천만’ 보복 운전자에 징역 3년형	연성
15	5월 31일	일본, 니시노시마 분화 재개… 섬 면적 12배 늘어	연성
16	5월 31일	덴마크, 자연은 왜 녹색이어야 하나?	연성
17	6월 1일	일본, 짧은 신자 유치 위해 ‘테크노 법회’	연성
18	6월 1일	‘우유 거품 차’ 대륙 입맛 사로잡아	연성
19	6월 2일	인도 도심 뒤덮은 ‘오페수 거품’	연성
20	6월 2일	일본,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전 의수’	연성